

제14권 2호

2024. 1. 15~2024. 1. 28



하나금융그룹

하나금융 포커스

Bi-Weekly Hana Financial Focus

- | | |
|---------|---|
| 논단 | 금융의 플랫폼화에 따른 규제 정비 과제 |
| 이슈분석 | 日 대형은행의 비금융 신사업 추진 사례와 시사점 |
| 금융경영브리프 | 흑한기 글로벌 VC 시장 트렌드
회복세가 기대되는 글로벌 M&A 시장 |
| 금융시장모니터 | 금 리 : 경제지표도 막지 못한 시장 인하 기대
외 환 : 내우외환 속 원/달러 환율 1,310원대 진입 |
| 금융지표 | 국내 금융시장
해외 금융시장 |

인간

연구자는 사람⁺, 고객은 사람⁺⁺

세상을 바꾸기 전에 먼저 사람을 바꿔야 합니다.

현실에 기초한 진지한 연구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창조하는 것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사명입니다.



집필진

편집

선임연구위원 장보형(jangbo)
연구위원 김영준(kimekono)
연구원 송형은(hesong)

논단

연구위원 류창원(cwryu)

이슈분석

수석연구원 심윤보(simjunil)

금융경영브리프

연구위원 송재만(jmsong)
연구원 김종현(jh.kim_)

금융시장모니터

금 리 | 연구원 김용태(ket1006)
외 환 | 연구원 진옥희(okheejin)

금융지표

연구원 진옥희(okheejin)

하나금융 포커스

Bi-Weekly Hana Financial Focus

- 01 **논단** 금융의 플랫폼화에 따른 규제 정비 과제
- 04 **이슈분석** 日 대형은행의 비금융 신사업 추진 사례와 시사점
- 08 **금융경영브리프** 하반기 글로벌 VC 시장 트렌드
회복세가 기대되는 글로벌 M&A 시장
- 12 **금융시장모니터** 금 리 : 경제지표도 막지 못한 시장 인하 기대
외 환 : 내우외환 속 원/달러 환율 1,310원대 진입
- 16 **금융지표** 국내 금융시장
해외 금융시장

금융의 플랫폼화에 따른 규제 정비 과제*

류 창 원 연구위원

공정위는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지정하고 사전규제를 정의한 ‘플랫폼 경쟁촉진법(가칭)’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금융의 플랫폼화가 진전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플랫폼에 대한 논의도 연계할 필요가 있다. 금융플랫폼이 금융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비자 후생을 제고할 수 있도록 독과점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규제를 마련하고 금융상품중개 활성화 정책은 단계적 추진이 바람직하다. 또한 금융회사와 빅테크 플랫폼간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빅테크 플랫폼의 배상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 공정위, 사전규제 기반의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 추진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경쟁촉진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입점 업체에 대한 ‘갑을’관계 등 플랫폼의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자율규제를 추진하나 플랫폼의 독과점 우려에 대해서는 사전규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플랫폼 경쟁촉진법은 시장별로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지정하고, 자사 우대, 멀티호밍(플랫폼을 바꾸거나 동시에 여러 플랫폼을 사용하는 현상) 제한 등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가장 중요한 요소인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기준은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전규제를 강화한 플랫폼경쟁촉진법 제정을 추진

전세계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은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네트워크 효과(network effect)’로 인해 후발주자가 충분히 경쟁하기 어려워 독과점화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이를 사후적으로 규제할 경우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독과점의 폐해를 수습하기 어렵다. 대표적인 사례가 아마존이다. 아마존은 약탈적 가격책정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였지만 소비자 후생을 중시하는 기존의 사후적 독점 규제 체계에서는 한계가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21년 6월 하원에서 거대 플랫폼을 대상으로 사전규제를 강화하는 5개의 반독점법안 패키지를 발의(’23년 1월 의회 회기내 미통과로 폐기)하였으며, EU는 대형 온라인플랫폼의 영업행위를 규제하는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 Acts)’과 게이트키퍼(gatekeeper)에 대한 사전규제를 골자로 한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 Act)’을 제정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법률안은 미국과 EU의 사례를 상당 부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 본고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으로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금융부문의
플랫폼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나,
금융플랫폼 규제
체계는 다소 미흡

∴ 국내 금융플랫폼 규제 체계는 영업행위 중심으로 제한적

‘금융플랫폼’의 정의는 명확하지는 않으나 “온라인을 기반으로 다양한 금융상품(서비스)에 대하여 다수의 공급자와 수요자들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매개체”¹¹⁾로 정의 내릴 수 있다. 금융플랫폼은 금융시장의 경제적 마찰을 완화하고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금융의 다양성 및 효율성, 포용성을 개선할 수 있다. 그러나 경쟁구도 측면에서 금융회사와 빅테크간 공정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많은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바람직한 플랫폼화를 위해서는 세심한 규율 마련이 필요하다.

국내 금융산업은 고객 접점을 확보한 빅테크의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플랫폼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초기의 지급결제 영역을 넘어 대출, 증권 등 전통 금융업무로 확대되고 있다. 정책도 이를 뒷받침한다. '22년 8월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 이후 금융규제샌드박스 제도에 근거하여 금융플랫폼(‘온라인 플랫폼 금융상품 중개업’)의 시범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허용된 대출 외에 예금, 보험, P2P상품과 함께 올해 들어서에는 ‘공모펀드 혁신방안’에서 펀드 중개도 제시되었다. 이미 빅테크 금융플랫폼은 간편결제에서 6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예금, 대출, 보험 중개에서도 점유율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특히 모집인을 활용했던 가계신용대출의 경우 '22년말 기준 지방은행은 52.4%, 저축은행은 34.4%를 주로 빅테크 금융플랫폼이 중개하고 있다.

현재 금융플랫폼 규제는 전자금융거래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시 진입요건과 부가조건 등을 반영하여 관리하고 있다. 주로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이며,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경쟁촉진법(가칭)’과 같은 사전규제는 없다. 빅테크 금융플랫폼의 시장지배력이 아직 낮다고 판단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 금융플랫폼 사전규제를 검토하고 단계적 중개활성화 지속

그러나 금융분야에서 빅테크 금융플랫폼은 금융상품 판매에서 장기적으로 독점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크다. 전통적인 금융회사의 경우 금융데이터 위주로 활용이 제한된 반면, 빅테크는 비금융 분야와 금융분야의 데이터를 결합하여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소비자들이 빅테


[11] 최성일 · 이승협, 「금융부문 플랫폼화에 따른 리스크와 정책방향」, KDI (2022)

크 금융플랫폼으로 쏠릴 가능성이 크다. 금융회사가 빅테크 플랫폼에 종속되고 수수료 인상과 같은 독과점의 폐해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것은 늦다. 빅테크 플랫폼의 점유율 상승 추세가 지속될 경우, 사전규제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때 금융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와 부처 협의체를 통해 공동 규율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한 ‘온라인 플랫폼 금융상품 중개업’의 시범 운영은 현행과 같이 단계적으로 시행함이 바람직하다. 빅테크 플랫폼 업체의 과도한 시장점유율 확대로 금융안정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금융안정성에 영향이 큰 예금과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펀드에 대해서는 중개판매의 범위나 한도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

●●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금융플랫폼의 배상책임을 강화해야

한편 동일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회사의 플랫폼과 빅테크 금융플랫폼의 규제에는 최대한 단일 원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가령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보험 중개’와 성격이 유사한 ‘은행의 온라인 방카슈랑스’를 비교하면, 판매 상품 및 비중에서 규제가 달라 형평성 문제가 있다. 온라인 금융플랫폼에서는 자동차보험 판매가 가능하나 온라인 방카슈랑스에서는 불가능하다. 동일기능-동일규제 관점에서 온라인 방카슈랑스에 자동차보험 등 온라인 판매가 용이한 보험상품의 중개를 허용함이 타당하다. 방카슈랑스에서 특정 보험사의 판매 비중을 제한하는 25%룰은 보험중개플랫폼에도 적용함이 타당하다. 이는 보험중개플랫폼 도입 논의 초기 포함되었으나 최종안에는 제외된 내용으로 재검토가 요구된다.

영업행위 규제에서도 플랫폼의 배상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번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플랫폼의 영업행위 규제 조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가령 은행이 빅테크 금융플랫폼과 제휴를 통해 상품을 판매할 경우 배상책임은 사용자인 은행에 부과하고, 플랫폼에 대해서는 행위규제 위반에 대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수입의 50%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판매채널에서 빅테크 금융플랫폼이 은행보다 협상력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금융서비스중개업’과 같이 빅테크 금융플랫폼에 배상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금융플랫폼에 대한 사전규제를 검토하고, 중개활성화 정책은 단계적 추진 지속

금융회사와 빅테크 금융플랫폼간 규제 차이를 해소하고 빅테크 금융플랫폼의 배상책임을 강화

日 대형은행의 비금융 신사업 추진 사례와 시사점

심윤보 수석연구원

은행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요구 확대와 규제 완화가 이어지며 日 은행의 업무범위가 비금융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日 대형은행들은 서비스역량 개선 및 라인업 확대, 사회구조적 변화 대응 등을 위해 비금융서비스를 확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내부역량 강화, 투자 및 제휴 확대, 기업문화 및 거버넌스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은행의 사회적 역할이 점차 강조되고, 금산분리규제 완화도 검토되는 가운데, 은행들은 日 사례를 참고해 비금융사업 추진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日 은행의 업무범위는 본연의 금융기능 제공을 넘어 사회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비금융기능 제공으로 지속 확대 중

- 日 사회가 요구하는 은행의 역할은 대출, 자본시장 중개 등 기존의 금융 기능 위주에서 고령화, 기후변화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비금융 기능으로 점차 확대 중
- 이에 정책당국은 지역경제 활성화, 기업생산성 제고, 지속가능사회 구축 등을 유도하기 위해 '16년부터 은행 및 은행 자회사의 업무범위 규제를 점차 완화
 - '16년 IT기업, 핀테크 등 '은행업고도화등회사' 소유를 허용한 이후 '은행업고도화등회사'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20년 이후 은행의 '은행업고도화등업무' 수행을 허용
-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해 日 은행권은 금융 서비스 고도화와 사회이슈 해결을 중심으로 '생태계 오케스트레이터'로서의 역할을 확대 중
 - 은행의 업무범위 확대는 기술 강화를 통한 은행 서비스 고도화와 기업생산성 개선, 시니어 케어 및 지속가능 생태계 구축 등 사회이슈 해결 부문에 집중

■ 日 은행 업무범위 관련 규제 완화 추이

2016년 은행법 개정	2019년 중소대상감독지침 개정	2020/21년 은행법 개정
은행 자회사 범위 확대	은행업고도화등회사 범위 확대	은행업고도화업무 도입
은행업고도화등회사 개념 도입	'지역무역상사' 포함	은행업고도화등회사 업무 범위 확대
당국 판단에 따르는 Negative 방식	지방금융기관들의 요청	사회 공헌 역할 확대(자회사/부수업무)
은행업고도화등회사 • IT 기술 등을 통해 은행업의 고도화 혹은 고객 편의향상에 이바지하는 기업 - IT 기업 - 핀테크	지역무역상사 • 은행 거래회사의 마케팅이나 판로에 기여하는 기업 - 재고 보유 및 물류 기능은 허용 - 제조 및 상품 가공은 허용되지 않음	목적에 맞는 비금융 업무 수행 • 지역 활성화, 산업의 생산성 향상, 기타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에 기여하는 업무 혹은 기업

자료 : 日 금융청,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정리

■ **日 3대 대형은행은 ‘16년 규제 완화 이후 자체 IT 기업 설립, 핀테크 인수 등을 통해 비금융 신사업을 확장하기 시작**

- ‘은행업고도화등회사’ 도입 이후, 대형은행은 자체 IT 기업 설립, 은행업 고도화 아이디어 실현을 위한 기술기업과 합작법인 설립 등을 통해 비금융 업무를 시작
 - MUFG는 디지털 역량강화를 위한 사내 조직을 분사 후 외형확대를 통해 은행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기술 개발업무를 본격 확대(Japan Digital Design)
 - SMBC는 사내벤처에서 발굴한 은행 업무프로세스 개선 아이디어의 신속한 사업화를 위해 기술기업과 합작으로 비금융 자회사를 설립(Polarify, SMBC클라우드사인 등)
- 이후 규제 완화에 발맞춰 합작법인, 자회사, 은행 내부서비스 등 다양한 형태로 기업 및 시니어고객 지원, 헬스케어 서비스 등 비금융 신사업을 본격 확대
 - 日 은행권 수행가능 비금융 업무범위는 은행업 고도화, 기업고객 지원, 지역 활성화, 산업 생산성 향상,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에 기여하는 업무 순으로 확대

■ **은행권 진출이 가장 활발한 분야는 기업고객에 대한 비금융 서비스 부문으로서, 주요 성공요인은 은행이 기업고객에게 다양하고 완결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 은행권은 기업 고객의 다양한 수요 충족을 위해 비금융서비스 라인업을 확대. 초기에는 B2B매칭 플랫폼, 기업의 디지털전환 지원 등의 서비스를 주로 제공
 - SMBC는 통신 및 IT 회사 NEC(일본전기)와 합작으로 B2B 매칭 플랫폼(Biz-Create)을 설립하였으며, MUFG는 은행 내부서비스로 매칭 플랫폼(Bizry)를 운영
 - 은행권은 내부 역량 및 파트너사와의 협업을 통해 기업의 디지털전환을 지원하는 서비스도 제공(SMBC Value Creation, Mizuho Digital Connect, MUFG Busikul 등)
- 이후 기업의 탄소배출 감축 지원, 재고금융 서비스 등 영역이 점차 확대
 - 온실가스 배출 데이터 수집부터 탄소 감축 지원까지 전단계 지원 서비스(SMBC Sustana 등) 및 재고를 일시적으로 매입하는 재고금융 서비스(MUFG Trading) 등

■ **日 3대 은행의 비금융 신사업 추진 사례**

구분	서비스명
디지털전환 역량 강화	Japan Digital Design(MUFG), Polarify, SMBC Cloud Sign(SMBC) 등
중소기업 지원	SMBC Value Creation, PlariTown, Biz-Create(SMBC), Bizry, Busikul, MUFG Trading(MUFG), Mizuho Digital Connect(미즈호) 등
헬스케어/시니어	decile, Plus Medi, SMBC Digital Safety Box, Family Network Service(SMBC), Healstep(미즈호) 등
ESG	Sustana, Alli for Green(SMBC), Mizuho Nature Positive Design(미즈호) 등
정보은행, 광고	SMBC Digital Marketing(SMBC), Dprime, 디지털광고 사업(MUFG) 등

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정리

■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헬스케어 및 시니어 지원 서비스 진출도 활발

- 의료기관 제휴 확대, 의료 데이터 관리 및 분석 등을 통해 의료 정보은행, 메디컬 솔루션 앱, 개인 디지털 헬스케어 등 헬스케어 부문 서비스를 확대
 - SMBC는 의료 정보은행 서비스를 출시하고 자체 메디컬 서비스 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 미즈호는 자체 플랫폼에서 미래 질병리스크 및 의료비 예측 서비스를 제공
- 기존 자체 시니어 대상 서비스에 더해 제휴, 비금융 자회사 설립 등을 통해 금융과 비금융 모두를 포함한 종합 시니어 솔루션 제공 체계를 구축
 - SMBC는 ‘SMBC Elder Program’을 통해 내부, 자회사, 제휴서비스를 조합해 시니어 담당 컨시어지가 시니어 고객에게 필요한 금융 및 비금융 서비스를 소개
 - SMBC Elder Program 내 자체 비금융 서비스는 디지털 엔딩노트¹¹ 서비스(내부 서비스)와 가족 간 재무, 건강 등 민감 정보공유 플랫폼 서비스(자회사) 등

■ 日 3대 대형은행은 다양한 비금융 신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자체 혁신역량 강화와 적극적인 외부 제휴 확대를 동시에 추진

- 日 대형은행은 자체 R&D 센터 구축을 통해 디지털 전환 및 혁신 추진 역량을 강화하고 기존 솔루션 고도화 및 신규 솔루션 개발을 지속
 - MUFG는 자체 R&D 센터 Japan Digital Design을 설립하였으며, 미즈호는 디지털 신사업 추진을 위해 리서치, IT,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는 자회사를 통합하여 확대
- 자체 혹은 투자전문회사를 통해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분야에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적극적인 외부 제휴, 합작 등을 통해 신속하게 비금융 신사업을 추진
 - 미즈호는 자체 CVC를 설립하여 유망사업 및 기술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한편, 공동으로 인큐베이션 특화 기업을 설립해 혁신 유망기업을 육성
 - 또한 ‘Open & Connected’ 전략 하에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비금융 신사업을 확대

■ 日 대형은행의 비금융 신사업 추진 프로세스

<p>자체 DX 역량 강화 + 외부 제휴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 DX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 기업 운영 → 자체 플랫폼 강화, 업무 효율화 등 • 적극적인 제휴를 통한 신속한 서비스 라인업 확대 및 기술/노하우 공유 	<p>전략적 투자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방형 혁신을 통한 유망 분야 전략적 투자 확대 (별도 투자조직 등을 통한 유망 분야 선점 효과) • 자체 액셀러레이션 프로그램을 통한 다양한 협업 가능 사업모델 발굴
<p>기업문화 혁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인 의식 함양, 도전 및 참여 장려를 위한 기업문화 혁신 (사내벤처 프로그램 확대 등) • 디지털 혁신 및 신사업 추진을 주도할 인재 양성 프로그램 강화 	<p>거버넌스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룹 DX 및 신사업 추진 역할을 수행할 전담조직 설립 • 전담조직의 장(예: CDIO)에게 사업 추진, 예산 배정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 부여


자료 : 각 사 IR 자료,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정리

[1] 죽음 준비활동의 일환으로 자신이 원하는 간병 및 장례방식, 가족에 대한 메시지 등을 기록, 보관, 전달

■ 또한 내부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기업문화를 혁신하고 발굴된 아이디어의 신속한 사업화 추진을 위해 전담 조직을 구축하거나 임원을 임명하는 등 거버넌스도 강화

- 전략 방향성 전파와 사업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경영진과의 공감 및 주인의식 함양 등을 통해 임직원의 도전과 참여를 장려하도록 기업문화를 전환
 - MUFG는 자주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임직원들로 구성된 조직으로 변하기 위해 임직원의 주인의식을 강조하는 ‘MUFG Way’를 전파하며 도전과 참여를 장려
 - SMBC는 과감한 변화, 지속적인 혁신, 강점 극대화 실현을 위해 기업문화 전환을 추진하며, 그 일환으로 사내벤처 프로그램을 통해 8개 이상의 자회사를 설립
- 디지털 전환 및 신사업 추진 역할을 관장할 조직을 설립하거나 사업 추진 및 예산 배정 여부 결정 권한을 보유한 임원을 임명해 신사업 추진 거버넌스를 강화
 - MUFG는 디지털 전환 이니셔티브 가속화를 위해 ‘디지털서비스 그룹’을 신설하고 전 사업부문의 신사업 추진을 포함한 디지털 전략을 주도하는 역할을 부여
 - SMBC는 신규 디지털 사업 투자 확대를 위해 CDIO를 도입하고 매월 CDIO 회의를 통해 신규 사업 아이디어에 대한 사업화 및 투자 여부를 결정

■ 국내 은행권도 향후 규제 변화에 대비해 고객의 사용자 경험을 완성하는 방향으로 비금융 신사업 추진을 검토하고 이에 맞는 역량 및 거버넌스를 확립할 필요

- 국내 은행권도 미래 성장기반 확보를 위한 사업영역 확대가 필요한 가운데, 전통적 금융기능 외에 사회적 가치 창출 등 새로운 역할에 대한 요구도 확대
- 하지만 현재 국내 규제 상 은행은 일부 허용된 부수업무 외에 비금융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없으며, 비금융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의 소유도 불가
 - 현재 부수업무 중 비금융 관련 업무는 데이터분석 및 판매, 기업 대상 정책자금 추천 및 공급망 관리 플랫폼 서비스, 본인인증 서비스 등으로 범위가 제한적
- 이에 은행권은 비이자의 확대, 빅테크와의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등을 이유로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당국도 금산분리 완화 방안을 검토 중
 - 당초 지난해 3분기 발표 예정이었으나 현재 추가 검토를 이유로 연기
- 사회가 요구하는 은행의 비금융 사업 추진 방향은 금융사가 공급부족 등으로 시장실패가 일어나는 영역에 진출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방향
- 은행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감안해 고객의 비금융 니즈를 충족시켜 완결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 또한, 비금융 신사업은 아이디어 선점이 중요하므로 규제 완화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방형 혁신을 통해 외부 유망 기술 사업자 등과 관계를 구축하는 한편, 신속한 고객 니즈 파악과 사업 추진을 위해 조직, 임원 편제 등 거버넌스 확립이 필요 

혹한기 글로벌 VC 시장 트렌드

송재만 연구위원

글로벌 벤처투자는 2022년 이후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글로벌 VC 시장 침체는 mega-round 투자 감소, 신생 유니콘 기업 급감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2023년 글로벌 VC 시장은 ChatGPT 등 AI에 대한 관심 증대 영향으로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일본 금융그룹 산하 CVC가 투자 확대를 통해 글로벌 주요 투자자로 부상하는 특징을 보였다. 국내 기업과 금융회사도 기업의 미래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수단으로 벤처투자 확대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 글로벌 벤처투자는 2022년 이후 감소세가 지속, 특히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위축^[1]

- 글로벌 벤처투자 규모는 '22.1분기 감소세로 전환했으며, '23.4분기 현재 510억 달러로 '17.1분기(420억 달러) 이후 분기 기준 최저치를 기록
 - 글로벌 벤처투자 규모(십억 달러) : 180.3('21.4Q) → 152.9('22.1Q) → 118.6(2Q) → 84.4(3Q) → 70.3(4Q) → 72.0('23.1Q) → 58.7(2Q) → 66.8(3Q) → 51.0(4Q)
 - 글로벌 벤처투자 킬 규모(건) : 12,631('22.1Q) → 10,639(2Q) → 9,943(3Q) → 8,856(4Q) → 8,688('23.1Q) → 7,419(2Q) → 7,027(3Q) → 6,169(4Q)
- 지역별로는 아시아 지역이 '23.4분기 현재 123억 달러로 '21.4분기 대비 77% 감소한 데 이어 미국(240억 달러, 73%), 유럽(108억 달러, 51%) 순으로 둔화

■ 투자규모 감소 등 양적인 변화 외에도 mega-round 투자 감소, 신생 유니콘 기업^[2] 급감 등으로 글로벌 벤처투자 시장에 대한 침체 우려가 심화

- 그동안 美 연준의 금리인상, 지정학적 리스크 확산 등으로 글로벌 VC 시장이 위축됨에 따라 벤처투자를 위한 자금 조성이 어려워지고 mega-round(1억 달러 이상) 등 대규모 투자 금액이 요구되는 단계의 투자는 감소세를 지속
 - mega-round 투자 규모(십억 달러) : 103.9('21.4Q) → 25.5('22.4Q) → 17.3('23.4Q)
- 특히, 성공한 스타트업으로 인식되는 신생 유니콘 기업 수는 '23.3분기 14개 증가에 그쳐 분기별 증가 수치로는 지난 6년 중 최저를 기록
 - 분기별 신생 유니콘 기업 수(개) : 137('21.4Q) → 21('22.4Q) → 14('23.3Q) → 23(4Q)


[1] "State of Venture 2023 Report", CB Insights, 2024.01.04

[2] 유니콘 기업은 기업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을 지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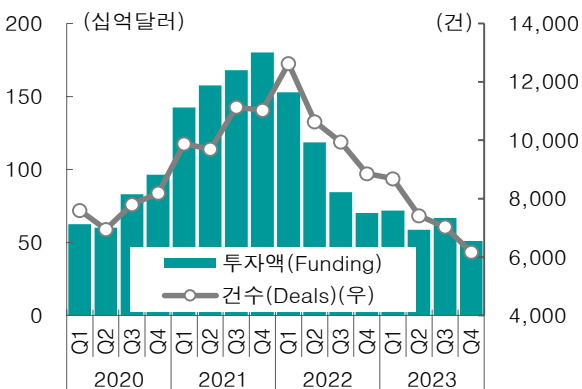
■ 최근 VC 시장 내 일본 금융그룹(CVC)의 투자가 증가하고 AI 기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

- '23.4분기 MUFJ Capital, SMBC Venture Capital, Mizuho Capital 등 일본 금융그룹 산하 CVC(기업형 벤처캐피탈)가 글로벌 Top 10 CVC 중 1~3위를 차지
 - '22년부터 글로벌 Top 10 CVC 중 일본계 회사가 다수 포함되기 시작했으며³⁾, 최근 글로벌 CVC 투자자 중 강자로 부상
 - 글로벌 벤처 투자자 순위를 CVC에서 전체로 확대할 경우, MUFJ Capital(6위)과 SMBC Venture Capital(10위)이 글로벌 벤처 투자자 Top 10에 포함
- '23년 글로벌 VC 시장은 ChatGPT 등 생성형 AI에 대한 관심 증대 영향으로 AI 분야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는 모습⁴⁾
 - '23년 글로벌 신생 유니콘 기업 수는 감소세를 보인 반면, 신생 유니콘 내 AI 관련 스타트업은 다수가 포함
 - '23년 유니콘 기업에 등극한 AI 관련 기업은 Cohere(캐나다), Runway(미국), Helsing(독일), AI12 Labs(이스라엘), Imbue(미국), Zhipu AI(중국), Mistral AI(프랑스) 등

■ 국내에서도 VC 시장의 투자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해 민관차원의 협력을 강화하고 기업은 미래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벤처투자 확대를 모색할 필요

- 국내 벤처투자 시장은 고금리 지속 등에 따른 투자 환경 악화로 어려운 상황이나 정부는 다양한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을 수립·발표하는 등 지원 방안을 모색
 - 정부는 '23년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 '벤처투자 활력 제고 방안' 등을 발표, 향후 민관차원의 협력 강화를 통한 벤처투자 활성화 유도가 필요
- 국내 기업 및 금융회사는 산하 VC(CVC) 등을 투자 vehicle로 활용하여 미래 신성장 동력 발굴(SI) 목적의 자금공급 확대 노력이 요구 

■ 글로벌 벤처투자 금액 및 건수 추이



자료 : CB Insights

■ 글로벌 Top CVC & Top Investors 순위('23.4Q)

순위	글로벌 CVC	순위	글로벌 벤처 Investors
1	Mitsubishi UFJ Capital	1	Plug and Play Ventures
2	SMBC Venture Capital	2	Bpifrance
3	Mizuho Capital	3	Lightspeed venture Partners
4	Google ventures	4	Andreessen Horowitz
5	KB Investment, Samsung NEXT	5	General Catalyst
7	SBI Investment	6	Mitsubishi UFJ Capital, Antler, Gaingels
8	Mitsui Sumitomo Insurance venture Capital, SDIC Venture Capital	9	Insight Partners
		10	SMBC Venture Capital, Khosla Ventures 등

자료 : CB Insights

³⁾ “글로벌 CVC, 일본계 금융회사의 부상”, 하나금융경영연구소, 2022.09.05

⁴⁾ “State of Venture Q3'23 Report”, CB Insights, 2023.10.12

회복세가 기대되는 글로벌 M&A 시장

김 종 현 연구원

2023년 글로벌 M&A 거래액은 고금리 장기화,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 규제 환경 악화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29% 감소하며 2년 연속 3조 달러를 하회하였다. 2024년에는 금리 인상이 종료되면서 M&A 거래가 반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계기업 증가로 구조조정·카브아웃 매물이 증가하고 AI와 에너지 전환 분야에서의 거래가 활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금융사는 자본조달 비용 하락 등 금융여건 개선과 이연 수요에 따른 M&A 참여 기회 확대에 대비한 인수금융 전략이 필요하다.

■ 2023년 글로벌 M&A 규모는 전년대비 29% 감소하며 2년 연속 3조 달러 하회

- 고금리 장기화, 지정학적 긴장감 지속, 규제 환경 악화 등으로 인해 M&A 시장의 침체가 이어지면서 2023년 M&A 시장규모는 2년 연속 3조 달러를 하회시
 - M&A 규모가 2년 연속 10% 이상 하락한 것은 '08~'09년 이후 처음(런던증권거래소)
 - 고금리 환경에 따른 금융 비용 증가와 주가 하락으로 인해 거래 위축
- 다국적 M&A 활동보다 국내 M&A 활동의 회복탄력성이 양호한 양상을 보였으며, 러-우 전쟁 장기화 등에 따라 유럽의 M&A 물량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
 - EMEA 지역은 33%, 호주·인도 등 APAC 지역은 28% 북미 지역은 6% 감소

■ 금융시장 유동성 경색과 출구 전략의 어려움이 M&A 시장의 위축 요인으로 작용

- 2023년초 美 지방은행 파산과 Credit Suisse 매각 등 금융 시장 불안에 따른 은행들의 신용 제한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것 또한 M&A 감소 요인
 - 금융 조달 어려움 증가로 2023년 사모펀드의 M&A 시장 참여 규모는 전년대비 57% 하락
- 아울러 시장 참여자들은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IPO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인수자의 엑시트 기회가 좁아진 것으로 여겨 M&A 투자 위축으로 이어짐
 - IPO 활황 시 잠재적 매도자는 출구 전략으로 이중 트랙 프로세스(기업 매각 또는 IPO)를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IPO 활동 증가는 M&A 거래에 긍정적이거나, 반대로 IPO 위축시 출구 전략은 기업(지분) 매각으로 좁혀짐


[1] "Global dealmaking drops below \$3tn for first time since 2013", FT, 2023.12.28

[2] "Global M&A Market Outlook", JP Morgan, 2023.12.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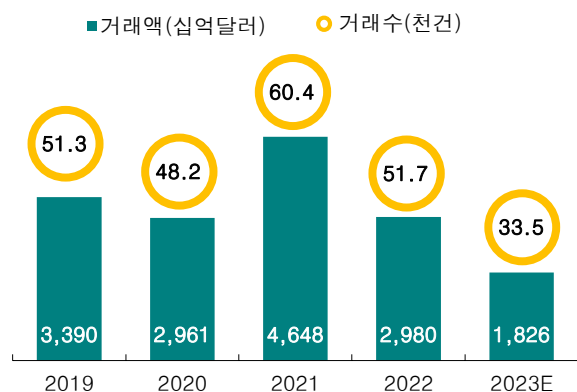
■ 2024년에는 구조조정 매물이 증가하고 AI-에너지 전환 분야의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

- 미국, 유럽계 IB는 2024년에는 금리 인상 종료에 의한 금리 환경 개선과 2년간 저하된 거래 흐름에 따른 이연 수요에 따라 M&A 거래가 반등할 것으로 전망
 - 자금조달 여건이 개선되면서 사모펀드의 M&A 참여도 재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한편, 경기 둔화와 고금리 영향으로 기업의 재정적 어려움이 확대됨에 따라 한계 기업이 증가하면서 구조조정 매물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비핵심 사업부 또는 특정 사업부를 분리 매각하는 카브아웃(Carve-out) 거래가 활발해질 전망
- Goldman Sachs, S&P 등 글로벌 금융사는 생성형 AI 관련 산업의 성장과 친환경 기초 재확산에 따라 기술, AI, 에너지 전환 분야에서의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

■ 국내 금융사는 M&A 관련 기회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적합한 참여 전략을 수립할 필요











- 국내외 금융사는 은행 중심의 수익 구조를 개선하고 비이자 수익을 확대하기 위해 M&A 참여를 통한 수익구조 다변화 전략을 추진
- 국내 일부 은행들(IBK기업은행, SH수협은행 등)은 규제 환경³⁾에 의해 대규모 거래가 줄어들고 중소기업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M&A 전문부서를 신설 하여 중소기업의 M&A 시장 참여를 촉진
- 국내 금융사는 M&A 참여 기회 확대에 대비한 인수금융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구조조정 매물과 중소기업 거래가 증가하는 만큼 인수대상의 리스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M&A 참여시 인수대상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 

■ 글로벌 M&A 활동



주 : 2023년 데이터는 1~10월 합산
자료 : S&P Global

■ M&A 활성화 요소와 제한 요소

M&A 제약 요인	M&A 유발 요인
 거시 경제 변동성 시장 불확실성, 지정학적 갈등 지속 등은 투자 심리를 악화	 전략적 필요성 대규모 현금성 자산, 성장 필요성, 상대적으로 매력적인 가치평가 수준은 M&A 참여를 촉진
 규제 리스크 증가하는 반독점, FDI 관련 규제는 기업 인수 검토의 복잡성을 확대	 기업 공개, 사업 분할 및 매각 경영진들은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전략적 선택권을 확보하기 위해 분리매각을 추진
 금융 제약 금융 시장의 제약은 자본 조달 비용 상승을 초래	 행동주의 주식시장 변동성은 행동주의 투자자로 하여금 M&A에서 저평가 문제를 해소할 기회를 제공
 밸류에이션 차이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기업 가치 평가 불일치 가능성	 활기없는 IPO 시장 시장 변동성과 미미한 IPO 성과가 이중 트랙 프로세스에 영향을 미침
 금융 스폰서 활동 상당한 유동성(dry powder)에도 금융 스폰서들의 활동 위축	 강화된 이사회 참여 신규 이사들이 C레벨 경영진보다 기능적 리더의 역할을 수행하는 등 이사회 역할 변화

자료 : JP Morgan

³⁾ 바이든 정부에서 강화된 반독점 규제는 대규모 인수합병 거래에 제약 요소로 작용 하면서 Exxon Mobil과 Chevron 관련 M&A가 중단되는 등 일부 대규모 거래에 영향(S&P Global)

금리: 경제지표도 막지 못한 시장 인하 기대

김 용 태 연구원

글로벌 금리는 매파적인 의사록, 견조한 美 경제지표 등 금리 상승 재료에 상승하다 시장의 연준 금리인하 기대가 되살아나며 상승폭을 축소했다. 국내 금리는 물가상승률 둔화와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 공식화로 하락했다. 1월 금통위는 통방문 수정을 통해 추가 인상 가능성을 철회했으나 상당기간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을 강조하며 조기 인하 기대는 제한했다. 향후 대내외 금리는 하방압력이 우세하나 1월말 美 재무부 국채발행계획과 FOMC 전후 시장 변동성에 유의해야 한다.

■ 글로벌 금리는 매파적인 의사록과 견조한 경제지표에도 시장의 인하 기대 이어지며 혼조세

-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과 달리 12월 FOMC 의사록에서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의지가 높지 않은 모습이 확인되면서 FOMC 이후 높아진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 기대가 후퇴
- 12월 고용지표에서 고용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아지고 임금 상승률이 예상을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 경계감이 추가로 확대
 - 美 비농업고용증가(MoM) : 10월 15만 → 11월 19.9만 → 12월 21.6만 (예상 17만)
- 이후 발표된 CPI/근원CPI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었으나 일시적 반등이라는 평가와 시장의 저가 매수 수요가 확대되면서 상승폭 축소
 - 美 CPI/근원CPI(% , YoY) : 10월 3.2/4.0 → 11월 3.1/4.0 → 12월 3.4/3.9 (예상 3.2/3.8)
 - 미 국채 2/10년물 금리(%) : 12.29일 4.25/3.88 → 1.5일 4.39/4.04 → 11일 4.26/3.97


■ 국내 금리는 물가상승률 둔화와 1월 금통위에 대한 비둘기파적 시장 평가로 하락

- 국내 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예상치(3.3% yoy)를 하회하며 디스인플레이션 흐름 이어갔으며, '24년에도 비용 상승압력이 완화되면서 둔화 흐름 이어갈 전망
 - 韓 CPI/근원CPI(% , YoY) : 10월 3.8/3.1 → 11월 3.3/2.9 → 12월 3.2/2.8
- 1월 금통위는 통방문에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나갈 것'이라는 문구가 삭제되면서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음을 시사
 - 韓 기준금리(% , 연말) : '20년 0.50 → '21년 1.00 → '22년 3.25 → '23년 3.50
- 국고채 금리는 대외금리 동조화 흐름 속 물가 둔화 흐름 지속과 금통위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 시사 속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재차 확대되며 상승폭 축소
 - 국고 3/10년 금리(%) : 12.29일 3.15/3.18 → 1.5일 3.28/3.34 → 12일 오전 3.19/3.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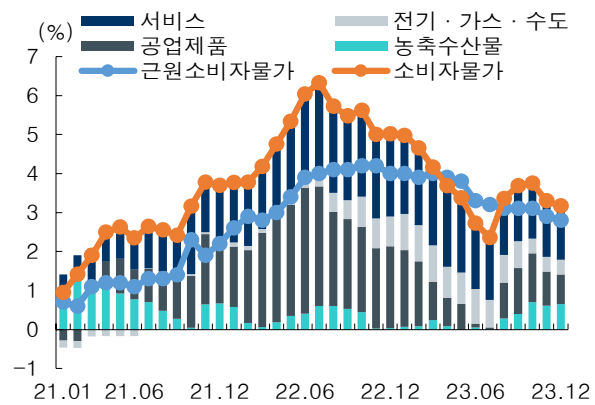
■ 1월 금통위, 국내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를 공식화 하며 8회 연속 금리 동결 결정

- 금통위는 경제성장세와 물가상승률이 지난 전망 경로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 수준에서 정책 여건 변화를 지켜보고자 기준금리 동결(3.50%, 만장일치)
- 통방문 내 가장 큰 변화는 향후 정책 방향과 관련해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나갈 것’이라는 문구의 삭제이며, 이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이 종료되었음을 의미
 -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향후(3개월) 금리 정책에 대한 금통위 의견 분포가 변화했으며, 5인 전원(총재 및 공석 제외)이 추가 인상보다는 현 금리 수준 유지 의견을 전달
- 지난 회의 기준금리 동결의 배경이었던 ‘가계부채 증가 추이’ 부분이 삭제되고 ‘부동산 PF 관련한 리스크가 증대’ 되었다는 문구가 추가된 점도 정책기조 전환 가능성을 시사
- 다만, 총재는 통방문의 ‘충분히 장기간’ 긴축 기조를 지속한다는 표현에 대해 ‘적어도 6개월 이상’을 의미할 것으로 본다는 개인적 견해를 유지하면서 조기 인하 기대는 제한
 - 현재 금통위는 인하 논의 자체가 시기상조인 것으로 판단하며, 선부른 금리 인하가 경기부양보다는 부동산가격 및 물가압력을 자극하는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언급

■ 시장의 매수 심리가 우세하지만 美 재무부 국채발행계획과 FOMC 전후 변동성 확대에 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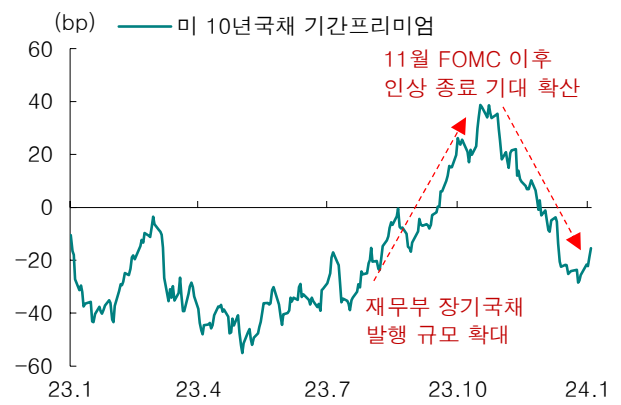
- 시장은 예상을 상회한 물가지표에도 큰 틀에서 디스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연준의 금리인상 사이클이 끝났다는 논리에 집중하면서 매수 심리가 우세한 모습을 시사
- 시장 내러티브를 감안할 때 당분간 금리 하방 압력이 우세할 전망이나, 1월 말 FOMC와 재무부 1분기 국채발행 계획을 앞두고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
 - 23.3분기 재무부 국채발행 계획을 기점으로 기간프리미엄 급증했던 경험 존재
- 국내 시장금리는 1월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 종료 시사로 하방압력이 우세할 전망이나 총재의 금리 인하 기대 형성 경계감을 고려했을 때 하락폭은 제한될 전망
 - 韓 국고채 3년, 10년 금리는 각각 3.10~3.30%, 3.20~3.40% 범위로 전망 

■ 한국 소비자물가 및 항목별 기여도 추이



자료 : 통계청

■ 美 10년국채 기간프리미엄 추이



자료 : Bloomberg

외환: 내우외환 속 원/달러 환율 1,310원대 진입

진옥희 연구원

원/달러 환율은 美 고용 호조 속에 경기 연착륙 기대가 부각된 가운데 12월 FOMC 의사록이 매파적으로 해석되며 약세 흐름을 시현하였다. 아울러 중동 갈등 고조와 北 도발 등에 의한 위험 회피 심리도 맞물리자 한때 1,320원을 상향돌파 하였다. 원화는 한은 총재의 매파적 발언에도 불구하고 美 조기금리 인하 기대 약화에 따른 달러화 강세와 아시아 통화 약세, 지정학적 리스크 등 하방압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요국 통화정책 회의 결과를 주시하며 제한적인 약세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 [원/달러 환율] 달러화 강세와 위안화 약세, 위험회피 심리가 맞물리며 1,310원대 진입

- 원/달러 환율은 美 경기 연착륙 기대 속에 달러화가 강세 흐름을 이어간 가운데 中 부동산발 부채 리스크로 위안화가 약세를 시현하자 상단을 높이는 모습
 - 美 비농업고용/평균시간당임금(예상): 11월 17.3/4.0 → 12월 21.6만명/4.1%(17.0/3.9)
- 아울러 중동 갈등 고조와 北 도발 및 부동산 PF발 건설업체 부실 확산 우려 등 대내 요인이 맞물리며 위험회피 심리를 강화하자 한때 1,320원 상향 돌파

■ [국제 환율] 달러화는 매파적 12월 FOMC 의사록으로 금리인하 기대 조정되며 강세

- 달러화는 12월 FOMC 의사록에서 구체적인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논의가 부재한 점이 매파적으로 해석된 가운데 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화되며 강세
 - 아울러 12월 美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가 시장 예상을 웃돌며 달러화 하단을 지지
- 유로화는 달러화 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유로존 12월 소비자물가 반등에도 獨 11월 제조업 수주가 예상치를 하회하며 경기둔화 우려가 부각되자 약세
 - 佛 중앙은행 총재가 '24년이 금리인하의 첫 해가 될 것이라 발언하며 약세에 일조
- 엔화는 지진으로 공장 조업 정지 등 경기 악영향 우려가 확대된 가운데 11월 실질임금 상승률이 전년동월비 하락하자 BOJ 정책 전환 기대가 약화되며 약세
 - 단, BOJ의 정례국채매입 축소와 경기부양용으로 매입한 ETF 매도 소식에 약세폭 제한
- 위안화는 차이신 제조업 PMI 개선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개발업체에 자금을 지원하던 중즈그룹의 파산과 인민은행의 유동성 공급 확대 시사 속에 약세 흐름 지속
 - 아울러 Fitch는 中 정부 지원 기대 축소로 자산관리회사 4개사 신용등급 하향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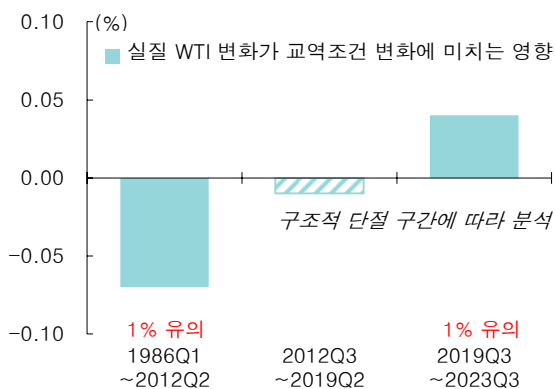
■ 지정학적 리스크와 수요 둔화 우려 등에 따른 국제유가 급변, 환율 변동성으로 연계

- 달러화는 원유 결제 통화로서 유가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나, 최근 중동 갈등 고조와 글로벌 수요 둔화 우려에 따른 유가 변동성 확대 속에 동조화되는 모습
 - 후티 반군의 홍해 민간 선박 공격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확산 가능성 등으로 공급망 리스크가 부각된 반면, 사우디는 수요 둔화 우려로 원유 수출 가격 인하를 단행
- 이는 ①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② 인플레이션 변화를 통한 통화정책 영향 등 기존 경로 외에도 ③ 원유 순수출국이 갖는 통화 특성에 기인
 - 미국이 '19년 이후 원유 순수출국으로 전환됨에 따라 국제유가 상승은 美 교역조건 개선을 통해 달러화 가치 상승으로 연계(BIS)
 - 국제유가와 달러화 간의 상관계수: '15년~'18년 -0.41 → '19년~'24.1.11일 +0.48
- 이에 원유 순수입국인 우리나라의 경우, 원/달러 환율이 유가 변화에 의한 직접적인 효과와 달러화 경로를 통한 간접 효과 등이 맞물리며 변동성 확대될 가능성

■ 원화는 금리인하 기대감 약화와 지정학적 리스크 잔존 속에 제한적 약세를 이어갈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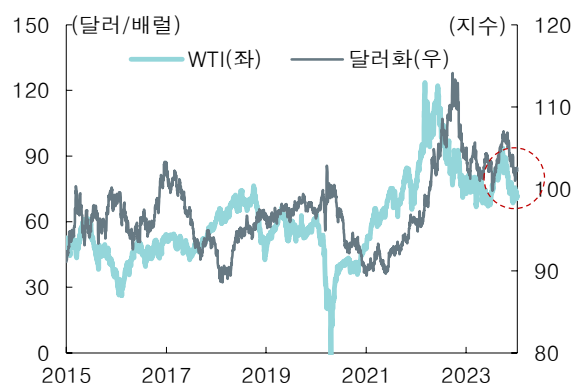
- 美 조기금리 인하 기대가 과도했다는 인식이 달러화 강세로 이어지는 가운데 아시아 통화 약세 압력 등이 맞물리며 원화 약세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
 - BOJ의 1월 통화정책회의(22~23일)에서 완화적 정책기조 유지 가능성이 대두된 가운데 中 인민은행의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MLF) 인하 기대감은 위안화 약세로 연계
- 단, 금통위에서의 6개월 내 금리인하가 어려울 것이라 시사한 총재 발언 여파와 유로존 물가 경계감 속 ECB 통화정책회의(25일) 등은 원/달러 환율 상단을 제한
- 한편, 중동 갈등 고조와 13일 예정된 대만 선거 결과 등 지정학적 리스크를 주시하며 환율은 향후 1,280~1,340원에서 불안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판단 **하**

■ 美 교역조건과 국제유가 간 관계 변화



자료: BIS(2023.3),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WTI와 달러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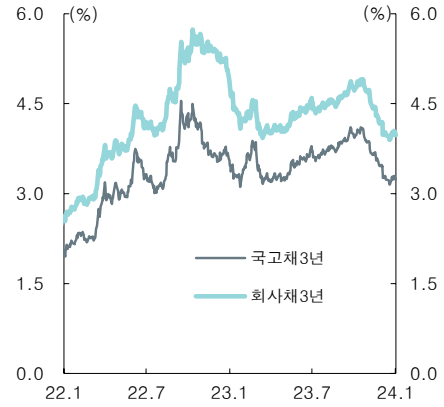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국내 금융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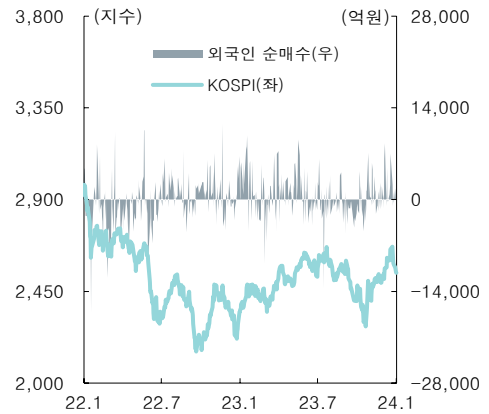
금리

단위: %	콜 (1일)	CD (91일)	산금채 (1년)	회사채 (AA-, 3년)	국고채 (3년)	국고채 (5년)
'21년말	1.44	1.29	1.66	2.42	1.80	2.01
'22년말	3.38	3.98	4.17	5.23	3.72	3.74
12월말	3.91	3.83	3.69	3.90	3.15	3.16
1월 5일	3.38	3.81	3.65	4.03	3.28	3.31
1월 8일	3.38	3.81	3.63	4.05	3.30	3.31
1월 9일	3.41	3.80	3.59	4.00	3.26	3.27
1월 10일	3.50	3.79	3.59	4.02	3.27	3.30
1월 11일	3.39	3.78	3.56	3.98	3.23	3.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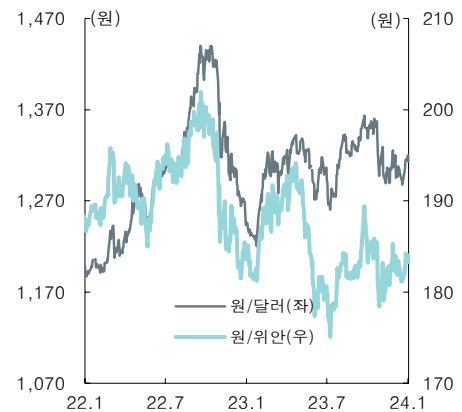
주가

	KOSPI (지수)	거래대금 (억원)	거래량 (백만주)	외인순매수 (억원)
'21년말	2,977.7	87,275	461	-2,184
'22년말	2,236.4	60,365	361	-1,437
12월말	2,655.3	94,189	460	7,017
1월 5일	2,578.1	83,845	522	-510
1월 8일	2,567.8	67,636	320	1,700
1월 9일	2,561.2	88,967	791	656
1월 10일	2,542.0	87,958	570	-238
1월 11일	2,540.3	136,699	788	22,962



환율

단위: 원	원/달러	원/100엔	원/위안	원/유로
'21년말	1,188.8	1,032.8	187.1	1,352.4
'22년말	1,264.5	950.3	181.5	1,349.0
12월말	1,288.0	911.0	181.2	1,425.1
1월 5일	1,315.4	908.7	184.2	1,439.0
1월 8일	1,316.0	912.8	183.8	1,441.6
1월 9일	1,315.7	910.4	183.8	1,437.8
1월 10일	1,320.1	905.4	184.1	1,447.5
1월 11일	1,312.9	903.0	183.3	1,44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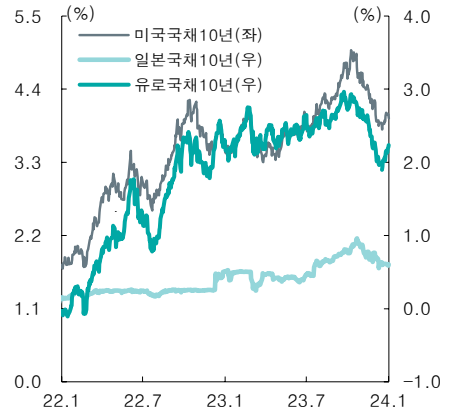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연합뉴스포맥스

해외 금융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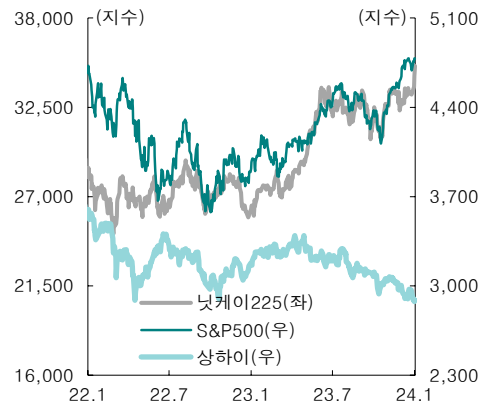
:: 금리

단위: %	미국				일본	유로
	실효FR	SOFR3월	국채2년	국채10년	국채10년	국채10년
'21년말	0.07	0.09	0.73	1.51	0.07	-0.18
'22년말	4.33	4.59	4.43	3.87	0.42	2.57
12월말	5.33	5.33	4.25	3.88	0.61	2.02
1월 5일	5.33	5.33	4.38	4.05	0.61	2.16
1월 8일	5.33	5.33	4.37	4.03	0.61	2.14
1월 9일	5.33	5.32	4.36	4.01	0.59	2.19
1월 10일	5.33	5.33	4.36	4.03	0.59	2.21
1월 11일	-	5.31	4.25	3.97	0.60	2.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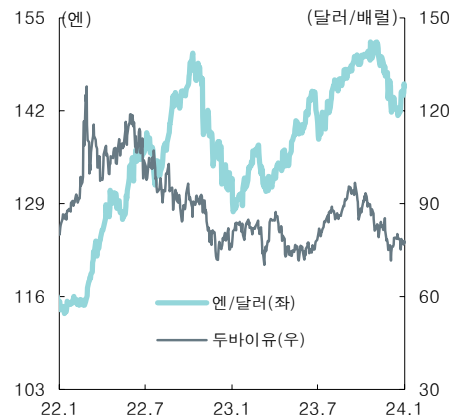
:: 주가

단위: 지수	S&P500	닛케이225	상하이종합	Euro Stoxx
'21년말	4,766.2	28,791.7	3,639.8	4,298.4
'22년말	3,839.5	26,094.5	3,089.3	3,793.6
12월말	4,769.8	33,464.2	2,974.9	4,521.4
1월 5일	4,697.2	33,377.4	2,929.2	4,463.5
1월 8일	4,763.5	-	2,887.5	4,485.5
1월 9일	4,756.5	33,763.2	2,893.3	4,467.2
1월 10일	4,783.5	34,441.7	2,877.7	4,469.0
1월 11일	4,780.2	35,049.9	2,886.7	4,442.3



:: 환율/상품

	환율		상품(유가 현물, 금 선물)	
	엔/달러(엔)	달러/유로(\$)	Dubai(\$/배럴)	Gold(\$/온스)
'21년말	115.09	1.138	77.2	1,814.1
'22년말	131.27	1.071	78.8	1,826.2
12월말	141.36	1.106	79.1	2,083.5
1월 5일	144.75	1.094	77.8	2,049.8
1월 8일	144.16	1.095	77.9	2,033.5
1월 9일	144.52	1.093	76.8	2,033.0
1월 10일	145.80	1.097	78.0	2,027.8
1월 11일	145.40	1.097	77.3	2,019.2



자료 : Bloomberg, 연합뉴스포맥스



하나금융포커스

제14권 2호

등록번호 서울중, 다00037

등록일자 2011년 3월 21일

2024년 1월 12일 인쇄

2024년 1월 15일 발행

발행인 이승열

편집인 장보형

발행처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대표전화 2002-2200

홈페이지 www.hanaif.re.kr

인쇄 (주)광문당

본 지에 게재된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으로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홈페이지



카카오톡 채널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하나금융포커스 제14권 2호

0453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Tel 2002-2200 Fax 2002-2610